

2013년 9월 (제 12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꿈 속의 바다

오경옥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던진다
꿈꾸는 어부
텅 비어있는 내 안의 바다

비상하던 바닷새
벼겁게 건져지는
내 아픈 시의 한 조각 부리로 찢고
그 아픔 내 몸무게 위에 더 큰 무게로 이끌려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 바다 한 가운데서

다시 그물을 던지자
다시 그물을 던지자



오경옥

1997년 '월간 문학21'로 등단
전북문인협회 회원, 군산문인협회 회원, 군산청사초롱 회원,
군산서해문학회 회원, 한국디지털도서관 정회원
시집으로 「누군가 그리워 질 때」 등이 있다.

이비성<동상이몽>, 이미지출처: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를 향한 도전과 지혜 2(이순신)	05
PART 03	기획전시 2013 극지체험 전시회 자가제작 목재보트 전시회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바다를 주제로 한 가요 음반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이 그리워집니다.

작년 7월 9일 그 뜨거운 여름날 대한민국 해양문화와 산업의 허브가 될 국립해양박물관이 마침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해양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해양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한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 것입니다.

제가 비록 박물관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 건물 준공에서부터 개관 후 운영까지 약 1년여 동안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을 기획하면서 개관까지 실무진에서는 전문가가 있었지만 책임자 급에서는 전문가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업무 일을 하다 박물관 개관을 5개월 앞두고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에 투입되었습니다.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전시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과연 짧은 기간에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개관 후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2012. 4. 30일 준공하였는데 부산시에서는 여수엑스포 개관에 맞추어 5월말까지 개관을 하자는 요청과 엄청난 압력(?)을 주었지만 결국은 7월 9일 개관하기로 하고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개관 준비를 하였던 것이 바로 엇그제 같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해양역사와 문화·해양생물·해양산업·해양과학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또한 과거의 해양유물만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해양체험도 할 수 있고 해양과학 등 해양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진취적이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박물관이라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외국의 유명 박물관과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약 1만2천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 자랑할 만한 유물들도 많은데, 국내 최초로 옛 문헌에 근거하여 복원한 「조선통신사선」, 1640년에 영국 더들리가 제작한 것으로 동해를 ‘한국해’로 표시한 세계 최초의 「해도첩」, 일본 막부시대 일본 해안가에 ‘죽도는 우리 땅이 아니므로 도해를 금한다’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죽도제찰」, 함경도 해안의 수심, 마을 호수 등을 기록한 「함경도해안실경지도첩」 등은 희귀하고 해양사적으로 소중한 유물입니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니 여러 기증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신 기증유물 역시 중요한 유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관 6개월 만에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1년 만에 16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연간 75만 명을 크게 웃도는 관람객이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주셨습니다. 박물관을 관람객 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는 부산은 항만도시에서 해양문화와 산업, 해양과학기술 등이 융합하는 해양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두시설,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삭막한 기계음 소리만 들렸던 항만에서 해양박물관이라는 문화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항만의 품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를 향한 도전과 지혜 2(이순신)

조선시대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가장 뛰어난 수군장수는 충무공 忠武公 이순신 李舜臣 이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그의 업적을 뛰어넘는 해군장수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순신은 1545년(인종 1) 3월 8일(음력)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여해 汝諧, 시호는 충무 忠武 이며, 본관은 덕수 德水 이다. 1565년(명종 20) 이순신은 20세의 나이로 상주 尙州 방씨 方氏 와 혼인했다. 그는 방씨와의 사이에서 이회 李薈, 이울 李蔚, 이면 李堧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처음에 문과에 뜻을 두었으나 혼인 1년 뒤 본격적으로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5년 뒤인 1572년(선조 5) 8월 훈련원 별과 別科 에 응시하였으나, 시험을 치르던 중 타고 있던 말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낙방하였다. 낙방하였지만 다시 일어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친 다리를 싸매고 과정을 마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해군에서 원형으로 복원한 거북선 모습

1576년(선조 9s) 2월 31세의 나이로 식년무과에서 병과 丙科로 급제하였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580년(선조 13) 발포수군만호 鉢浦水軍萬戶 (종4품)가 되었다. 1591년(선조 24) 2월 13일 전라좌도수군 절도사(정3품)에 제수되었다. 그의 나이 46세였고, 임진왜란을 1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듬 해, 조선 최대의 국난인 임진왜란이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로 출항하면서 발발했다. 이순신은 1592년 5월 7일 옥포 玉浦 해전부터 처음 승리하였다. 이어 사천에서 거북선을 사용하여 적선을 격파하였으며, 한산도해전에서 일본의 주력함대를 격멸하였다. 거북선은 이순신만큼 불멸의 명성을 누려온 배로 옛 선박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튼튼한 선체와 빠른 방향전환 능력 그리고 화포를 장착한 막강한 화력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전선을 깨트리고 불태우는 돌격선으로 이용되었다.

거북선의 구조는 『이충무공전서』에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거북선은 길이 34.2m, 너비 10.3m, 높이 6.4m이며 8~10개의 노와 2개의 돛을 단 구조이다. 거북선을 처음 투입한 전투는 1592년 5월29일 벌어졌던 사천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거북선을 적의 함대에 돌격시켜 뒤따라오는 판옥선에 길을 터주고 적의 예봉을 꺾어서 크게 승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왜군과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이순신은 남해안의 섬, 선로 船路, 조류 潮流, 기상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법을 택하여 매 전투마다 대승을 거두었다.

학익진은 학의 날개처럼 진을 펼쳐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적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진법으로, 이순신이 이 전술을 이용하여 한산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해로가 좁은 건내량에서 폭이 넓은 한산도 앞바다까지 일본 함대를 유인한 후, 적진을 향해 뱃머리를 돌려 학익진을 벌려 집중적인 화포공격으로 일거에 격파하였다. 한산해전의 승리로 거제도 서쪽 남해안의 제해권이 조선 수군으로 넘어왔고, 이후 일본군의 전체적인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그는 1598년 11월 18일 노량 露梁 해전까지 23전 23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순신은 왜란이 일어난 1년 뒤인 1593년 8월 삼도수군통제사로 승진해 해군을 통솔하면서 공격과 방어, 집중과 분산의 작전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그런데, 1597년(선조 30) 1월,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죽을 직전에 이르는 혹독한 심문을 받은 끝에 4월 1일 도원수 권을 아래 백의종군을 명받았으나, 원군의 칠천량 패전으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었다. 선조 31년(1598년)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량해전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다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는 시문 詩文 에도 능하여 『난중일기』와 시조, 한시 등 여러 편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1등이 되고 덕풍부원군 德豊府院君 에 추봉된 데 이어 좌의정이 추증되었다. 1613년(광해군 5) 영의정이 더해졌다. 묘소는 아산시 어라산 於羅山 에 있으며, 왕이 직접 지은 비문과 충신문 忠臣門 이 건립되었다. 통영 충렬사(사적 제236호),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아산 현충사(사적 제155호) 등에 배향되었다.

기획전시

2013 극지체험 전시회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이 인류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극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미지에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고자 2013 극지체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극지체험 전시회는 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서 극지와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각지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전시는 대부분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극진동과 한파모의실험, 얼음으로 된 타임캡슐, 결빙방지물질 모의실험 등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아라온호 모형과 체험영상을 통해 아라온호에 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플래시 퍼즐게임과 방하마을 포토존, 블리자드 체험존을 통해 강력한 극지의 바람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전시기간 중 토·일요일 11시부터 20분간 남극대원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극지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극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고, 극지연구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극으로 보내는 메시지쓰기 코너에서는 극지연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연구대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우편함에 넣으면 10월에 남극 연구원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한다. 멀고 추운 곳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관람객들의 응원의 메시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9월5일부터 울산대공원으로 이동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자가제작 목제보트 전시회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선도하며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학생, 조선장인, 동호인, 지역 중고생이 손수 제작한 「자가제작 목제보트전」이 국립해양박물관 1층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신윤복 그림 “주유청강 舟遊淸江” 속의 놀이배(널배)를 비롯하여, 2인승 뒹기보트와 카누, 카약 등 총 12종 20점의 손수 제작보트가 전시되었다.

본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인 보트 자가제작의 문화를 보급하고, 해양문화인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3인승 선외기 겸용 노보트

- 주요치수 약 3.75m×1.3m×0.47m(길이×폭×깊이)
- 주요특성 3인승, 중량 약 43kg, 선외기 겸용 노보트, 선외기 장착 시 속도 약 12노트
- 설 계 강병윤
- 제 작 강병윤 & 정재형 (1척), 동주대학 조선과(1척), 거제대학 조선과(1척), 사하구청 목선제작 동호회(1척)
- 제작배경 자가제작 보트 수상안전관리, 낚시용, 보트 제작/페들링 동호회 목적도구

2인승 뒹기보트(클링커정)

- 제작일시 2012.11. ~ 2013. 5.
- 주요치수 약 3.00m×1.20m×0.66m(길이×폭×깊이)
- 주요특성 2인승, 중량 약 65kg, 고급 전통 서양뒹기보트, 판재 겹침공법 형성
- 제 작 강병윤/리딩선박개발(주)
- 제작인원/시간 3명, 총 약 3개월
- 제작배경 서양 전통목선 제작공법 연구, 보트제작 전문 동호인용 보트 개발

소장품 이야기

바다를 주제로 한 가요 음반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일제강점기에 당대의 명창, 명기로 꼽히던 판소리 가수들이 일본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을 우리말로 번안해서 취입했던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윤심덕의 「사의 찬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등은 이 시기에 크게 유행하던 노래로, 민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6.25전쟁과 종전 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대중가요는 우리의 정서를 대변하였다. 특히 이 무렵 대중가요 중 3이 바다와 항구, 항구도시를 주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쟁 중에는 피난길의 이별과 피난처 부산에서의 고달픈 삶을 노래하는가 하면, 5~70년대는 해운업 등의 해외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마도로스, 배, 항구의 이별 등을 노래하는 가요가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마도로스를 노래한 가요는 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발표되었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절 외항선원이라는 직업의 높은 인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 해외취업 외항선원들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로, 취업희망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맞벌이부부가 10년 일해야 서민아파트를 겨우 구입하던 시절, 해기사는 1년 연봉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972년 공무원은 9급의 한 달 월급이 5,000원인 반면 일본선박 회사에 취업한 외항선원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으니, 어느 정도로 연봉이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직업이니만큼 1964년 이후 점점 늘어난 해외취업 외항선원들은 1973년 2천 명이 넘었고,

1981년에는 10배 이상인 2만8000여명으로 늘어났다. 1987년에는 4만747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했다. 해외취업 외항선원들의 경제적 기여도 상당했다. 1964년 55만 달러였던 외항선원들의 소득은 해마다 50%씩 증가해 1967년엔 약 3,4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우리 해운업체들의 총수입이 약 2,900만 달러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항선원들이 해운회사보다 돈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이쯤 되면 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외항선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마치 인생역전의 기회처럼 비춰졌을 당시의 상황이 그려진다. 달러를 벌기 위해 해외 송출선에 몸을 싣는 해기사가 많아질수록 마도로스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마도로스란 외항선 선원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matro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인이 발음하기 쉽게 마도로스로 변형시킨 것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마도로스는 외국에서 달러를 긁어모는 부의 상징이자, 외화획득을 위한 애국자, 또한 강한 남성의 표상이었다. 그와 함께 마도로스에게 순정을 바친 여인들도 연인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노래는 마도로스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것이 특히 많다.

마도로스에 관한 노래는 1933년 강석연이 부른 '마도로스의 노래'를 시작으로, 1936년에는 백석정의 '정열의 마도로스', 이난영의 '마도로스 꿈', 김용환의 '마도로스의 노래' 등 세 곡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1939년 백년설은 '마도로스 수기'를 불러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가사는 "항구야 항구야 하나둘 우리들은 마도로스다 항구를 떠도는 몸이 사랑도 미련도 가지기가 싫다 들어라 글라스를 울지 말고 들어라 내일은 어느 바다 어느 항구에도 배 닻줄을 던질 것이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기에 힘입어 백년설은 1941년 '마도로스 박'이라는 노래도 불렀다. 1964년 가수 오기택이 같은 제목의 '마도로스 박'을 노래했다. 마도로스 관련 노래의 최고 히트송은 백야성이 1960년 부른 '마도로스 부기'다. 1961년 고훈산이 '무역선 오고 가는 부산항구 제2부두 죄 많은 마도로스 이별이 야속드라'는 가사가 들어간 '아메리카 마도로스'를 불렀다.

마도로스 외에도 해양과 관련된 대중가요는 박물관 4층 "바다를 담은 노래"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역사

박물관 사람들

박물관이 개관한 지도 어느덧 일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저는 전시운영팀 소속으로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많은 관람객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람객 분들과 엮힌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저는 중국어 준통역 역할, 남극 세종과학기지와의 화상 통화 진행,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만들기 등의 업무를 통해 안내원, 진행요원, 강사 등 다양한 역할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양한 관람객들을 만나고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관식과 동시에 처음 박물관을 관람객에게 오픈했을 때 옥상에서 관람객 안전을 담당하며 순찰을 돌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야쿠르트 두 개를 쥐어 주시며 "선생님,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라며 격려를 해주셨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당신도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직원에게 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화상 통화 진행은 관람객과 하나되어 함께 질문하며 극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관람객이 있었는데 멀리 대전에서 방문한 어린이가 관람객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화상통화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으며 녹음하는 등, 끝까지 열심히 참여 해주었습니다. 사실 보통의 관람객의 경우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만 하고 화상통화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어린이의 경우 끝까지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전공이 중국어이다 보니 많이 생소하고 낯설었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람객과 함께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도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니면 불가능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저의 전공이 중국어라 중국인 관람객을 상대 할 때도 있습니다. 박물관 인근에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있어 외국인

관람객이 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여명이 넘는 중국인 관람객이 한 번에 방문하고 가셨는데 그 중 한분은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우리 박물관의 전시물을 중국어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국에는 아직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해양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 중국에는 2015년에 천진시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알려 드리고 하니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박물관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 중의 하나가 관람 질서 유지이다 보니 가끔 관람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관람객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다보니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자주 방문해 주시면서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최근까지 세종과학기지 화상통화와 더불어 아라온 호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강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관람객들이 남기고 간 설문지를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배우며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교육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도 박물관의 전시물을 어떻게 중국어로 전달할 수 있을 지 정리하다 보면 우리 박물관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해양에 관한 주제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박물관은 해양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이 빠진 비교적 한가한 시간 전시관을 지키며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쉽게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전달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 번 제 지식의 편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양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는 박물관에서 올 가을에는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고 보며 바다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저를 포함한 저희 전시운영요원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박민규(국립해양박물관 전시운영팀)

박물관 교육행사

어린이박물관 구연동화 | 우리바다를 지켜요

매주 수~금요일 11:00~12:00 / 유아 / 80명 /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바다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방법을 구연동화와 동요를 통해 배워보는 유아교육프로그램



Happy Weekend 온바다를 누벼라! 아라온호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3~6학년)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 없음)

극지의 결빙해역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우리나라 최초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역할과 우리나라가 건설한 극지연구소와 연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라온호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해양음악회 개최 2013.8.10

지난 10일, 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양관련 클래식과 설명을 들어보는 토크&클래식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금관 5중주연주, 전영록, 심신, 원미연, 여행스케치 등이 함께하는 흥겨운 7080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3,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개관 1주년을 축하하고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해양환경사랑 어린이 동요대회 2013.8.16

바다노래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제1회 해양환경사랑 어린이 동요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총 70여개의 팀이 참여하여 예선, 본선을 거쳐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은 '바다마을 기차여행'을 부른 「해원초등학교 중창단」이 수상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홍보 UCC 공모전」 시상식 2013.8.28

지난 28일,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국립해양박물관 홍보 UCC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UCC가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대상 외 총 10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영상물은 박물관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3 극지체험전시회 2013.8.11~29

극지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극지연구 활동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극지체험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펭귄, 해표, 조류, 남극대구 등의 극지동물과 해조류, 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과 광물을 박제 또는 표본이 전시되었으며, 극지 연구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에듀테인먼트형 전시회로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2013.8.24, 31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가 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포항고전기타 앙상블팀의 기타연주와 카우아이 우쿨렐레 앙상블팀의 클래식하면서도 밝고 섬세한 연주가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영어스피치 대회 2013.8.31

'기후변화와 나'의 주제로 영어스피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을 본 소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나의 실천 다짐을 말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관람후기

호기심 특특! 미지의 바다로 출발! (산촌마을 어린이 바다기행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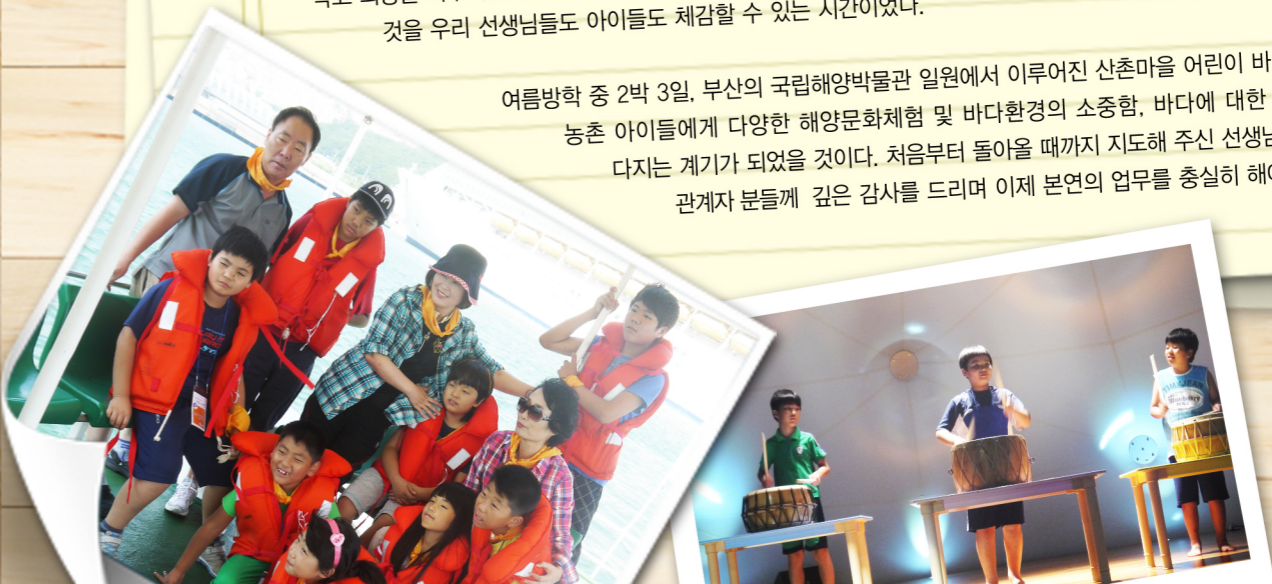
권명숙(운수초등학교 교사)

학교는 바쁘다. 21세기 인재교육의 산실인 학교는 미래의 창의 인재를 키운다고 방학이 되면 더더욱 바쁘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특기와 소질 키우기, 기초 튼튼교실을 통한 실력 보충 및 심화학습, 영어캠프를 통한 글로벌 인재 되기,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 줄이기 위한 돌봄 교실, 현장 체험학습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방학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침 해양수산부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초청 추천을 받아 8월 7일에서 9일까지 산촌마을 어린이 바다 기행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 행사는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산촌마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의식 고취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우리 운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목마름과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장소는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한국해양대학교, 영남씨그랜드센터 이었다. 첫째 날, 학생 18명과 교사 4명은 해양박물관에서 보내 준 관광버스를 타고 운수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둘째 날, 학생 18명과 교사 4명은 해양박물관에서 보내 준 관광버스를 타고 운수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첫째 날, 학생 18명과 교사 4명은 해양박물관에서 보내 준 관광버스를 타고 운수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전시해설을 들으며 오후 일정을 시작, 해양박물관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과 영화 감상을 한 후 숙소에 들 수 있었다. 둘째 날이 밝았다. 아이들은 숙소에서 친구들과 선후배 모두 모여 부산에서의 밤을 뜬 눈으로 보낸 것인지 밖으로 나갈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다.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아직 풀지 못한 채 아침호를 승선하였다. 오륙도와 북항, 북항대학교와 자갈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부산 바다를 한 바퀴 돌고 부두에 가까워 질 무렵 선장님의 배려로 6학년 승호와 주민이의 조타체험을 할 수 있었다. 미래의 선장님을 보는듯한 풍경이었다.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파악하는 살아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해양대학교 한바다호 승선은 아마 잊지 못할 꿈의 실현이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영도해양생태체험이 영도 절영 해안에서 있었다. 영남씨그랜드센터 선생님들과 바닷가에서 바다생태이야기 공부와 조개와 따개비같은 바다생물도 잡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잡은 생물이 신기하여 집에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해 바닷물에 되돌아 주는 환경운동가도 될 수 있었다. 바닷물이 아이들 발에 닿는 순간 모두 바다가 바닷환경을 살리기 위해 바닷물에 되돌아 주는 환경운동가도 될 수 있었다. 바닷물이 아이들 발에 닿는 순간 모두 바다가 친구가 되고 바위입구에 모두 모여 앉아서 밀려오는 밀물에 몸을 맡기면서 까무러치게 환호하기를 몇 차례! 보는 사람마저 즐겁고 시원한 풍경이었다. 이런 맛에 바다에 오는구나, 역시 아이들이었다. 추억으로 남겨야지,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렀다. 저녁에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장기자랑이 있었다. 미리 준비해간 난타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여름 낮의 뜨거운 햇살과 더위를 한방에 날려 주는 더욱 뜻깊은 부산의 밤이었다. 셋째 날이 되었다. 오전에 식사를 하고 해양환경개발교육원 2층과 3층에 있는 해양환경 전시물을 관람·체험을 재미있게 하고 별관에 있는 기름오염 방제체험실로 갔다. 바다에 배가 파손되거나 기름이 유출되었을 시를 가상하여 여러 가지 실험과 방제하는 법을 배우고 4학년 오성이와 5학년 민식이, 6학년 승호는 흡착포를 바다에 던지고 걸어 올리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바다의 오염을 막고 희망을 복구하는 방제체험을 실제로 해보니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름방학 중 2박 3일,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이루어진 산촌마을 어린이 바다 기행은 우리 농촌 아이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및 바다환경의 소중함, 바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겠다.



뉴욕자연사박물관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Climate Change & Marine Environment

보름 여름 떠나는
Fun Fun한 탐험



2013.6.4.(화) ~ 9.29.(일)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부산 영도)

문의 051-309-1841 www.climatechange.kr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 조선일보 | 환경재단 협력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후원 해양수산부 | 환경부 | 부산광역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기후변화센터 협찬 삼성 | 롯데백화점